



불서 읽기 캠페인

한국과 미국 '사이'엔 뭐가 있지?

한국과 미국, 오늘날 한국 사람에게 이 두 나라 이름이 주는 어감은 어떨까?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과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에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국 속의 미국을 생각해 보고 미국 속의 한국을 생각해 본다면, 두 나라의 이름에서 동시에 받는 느낌은 그 사람의 삶과 정신의 중요한 단면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사람들의 가슴에서 자란 '미국'의 양상은 다양해졌지만 반미와 친미라는 개념으로 대별되어 왔다. 물론 정치, 문화, 학술, 종교 등 여러 분야에서 반미와 친미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큰 틀로 볼 때, 반미와 친미는 한국에 사는 한국인과 미국에 사는 한국인을 따질 것 없이 살아가는 때 순간의 선택이 선택을 위한 사유라 할 수 있다.

'반'과 '친'의 선택,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이에 있는 무엇을 읽어 내는 것이다.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학교 박성배 교수는 40년 넘게 미국에 살면서 국적 인종 종교 문화 정치적 이념 등의 차이를 넘어서 남을 돕는 '동지들'을 무수히 보아 왔다. 그리고 그러한 코드 속에서 '한국학 운동'을 즐기며 진행하고 있다. 말하자면 미국 속에 제대로 된 한국을 심는 것이다. 그 중심에 불교가 있다. 불교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사이'를 극복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동양을 서양에 길들여서 이해시키려 하거나 서양의 눈만으로 동양을 보려는 오류를 극복하는 길 찾기에 다른 아니다.

박성배 교수는 진정한 한국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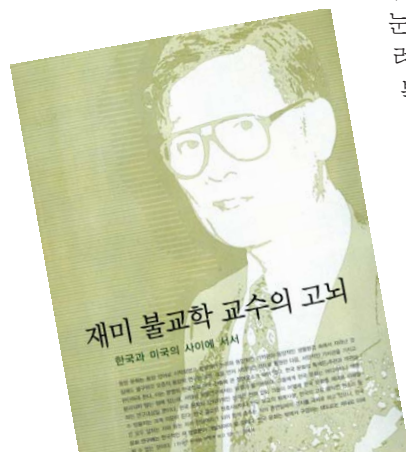
를 미국에 전파하는 길로 한국의 고승들이 남긴 저술들의 국역과 영역작업에 많은 공을 들였다. 특히 뉴욕주립대학에서 원호 스님의 저술을 영역하는 사업은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다. 깊은 학문적 성과와 현실적 삶에 뿌리를 둔 불교운동으로 존경받고 있는 박성배 교수는 미국에서 한국불교의 의미와 가치를 역설하는 제1세대 학자다. 하와이 대학의 버트 랭커스타 교수와 함께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한국불교 전공자로 꼽히고 있기도 하다.

대학 시절의 불교활동, 출가 후 성철 스님의 시봉,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는 과정 등, 박성배 교수가 살아 온 길에서 자신에게 던져준 수많은 고뇌들의 실체는 무엇일까? <재미불교학 교수의 고뇌>는 그가 털어 놓는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묶은 책이다. 박성배 교수는 서문에서 "내 글이 자기를 바로 알고 남들을 바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상존하는 진리의 발견을 독려하고 있다.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한 글과 좌담 혹은 인터뷰 기사들도 있고 '돈점문제'에 대한 굴뚝 없는 소신이 강하게 어필된 글도 실렸다. 불교의 사회화 일상화를 위해 창안한 '몸과 몸짓'의 논리에 대한 설명과 이 논리를 적용해 바라보는 세상사에 대한 법칙 불교학의 새로운 관점 등도 눈길을 끈다. 1997년 본지가 창간 3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3월제 정답' 내용도 새롭다. 박성배 교수가 친형인 정조 스님(일직)과 역사학자 박성봉 교수(경희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안성 석남사에서 '연간성 회복을 위한 성찰과 준비'를 주제로 나눈 정답이다.

글=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사진=박재원 기자 jwpark@buddhapia.com



재미 불교학 교수의 고뇌

박성배 지음 | 해안 펴냄 | 2만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나를 깨우는 108배	구본일	김영사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하루 108배 내물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4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5	공부하다 죽어라	현기 외	조화로운 삶
6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7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8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9	사찰 100미 100선	허균	불교신문사
10	불자생활백서	윤창화, 고명석	민족사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무상의 철학 타니타다시 지음 권서용 옮김 | 산지니 펴냄 | 1만8000원

다르마끼르피의 인식론 조명

일본인 저자가 인도의 불교사상가 다르마끼르피(600-660)의 인식론을 조명한 학술서다.

다르마끼르피는 7세기 인도불교사상가이다. 원시불교, 설일체유부와 경량부, 중관불교와 유식불교를 근간으로 형성된 그의 사상은 난해하다. 특히 다르마끼르피의 인식론은 '존재'에 입각한 인식론이 아니라 '연기(緣起)'나 '과정'에 입각한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불교적 존재론인 '무상(無常)'의 개념을 다르마끼르피의 '찰나멸(刹那滅)'로 설명한

다. 흐르는 물처럼 변하는 시간 속에서 존재도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점에서 다르마끼르피의 찰나멸은 아견(我見)과 아상(我相)에서 벗어나 '순간적 존재성'을 인식하는 논리적 개념이다.

저자는 "니체가 말한 것처럼 심은 죽은 것이 아니라 찰나멸할 뿐"이라며 "니체의 선언이 서양의 실체중심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라면, 다르마끼르피가 '모든 것은 찰나멸'이라고 선언한 것은 모든 맹신적 신앙의 종교나 언어·문자·분별적 사고에 대한 철학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말한다.

김주일 기자

재가 선가들의 '선적심령' 읽기



선시, 깨달음을 읽는다
이은윤 지음 | 동아시아 펴냄 | 1만5000원

"긴 낚시대 끝장 아래로 드리우니/한 물결 일렁이자 일만 물결이네
고요한 밤 물이 차가워 고기는 일질
얇고 빈 배에 밝은 달빛만 가득 실
고 돌아오네"

중국 당나라 선승 화정선사(華亭船子)의 선시 '긴 낚시대 드리우니(千尺絲綸)'이다. 고금의 선객들이 지향하는 깨달음의 경계가 잘 그려진 시로, 불교가 그토록 갈구하는 깨침의 미학을 대표하는 계승들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대중 읽어봐도 답백하고 그윽하며 고요하고 한가한 선취가 물씬 풍겨진다. 그렇다면 이 선시가 우리에게 설하고 있는 법문은 과연 무엇일까? 금빛 수면 같은 고요한 마음자리에 한 생각이 일차 마치 낚시추를 따라 이는 물결처럼 일파만파의 번뇌망상이 일어났다. 한 생각을 쉬고 관조하자 안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즉 '공즉시색 색즉시공(空即是色 色即是空)'의 정신이 조

월적 언어로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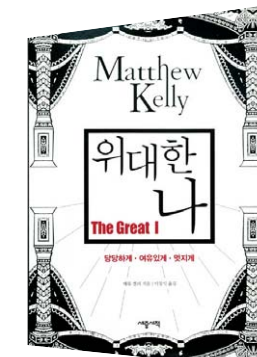
그런가 하면 "떠오르는 환한 달빛에 산새들 놀랐음인가(月出驚山鳥/때때로 산새들 울어대는 봄날의 개울가(時鳴春澗中)"라고 노래한 왕유(699-761)의 시 '새 우는 개울가(鳥鳴澗)'는 대자연에 대한 섬세한 체험을 한 쪽의 수록화처럼 그윽한 언어로 그려내 "선적인 적정(寂靜)의 경계를 묘사하고 있다"고 평한다.

절제된 언어와 상징으로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한 선시(禪詩)를 소개한 <선시, 깨달음을 읽는다>가 출간됐다. 금강불교신문 사장으로 재직중인 저자는 이 책에서 유종원(773-819), 도연명(365-427), 소동파(1037-1101) 등이 남긴 13편의 시에 담긴 불교적 깨달음의 세계를 동서양 고전을 인용해 깊이 있게 설명한다. 글 곳곳에 수십년 동안 중일일부 종교전문가로서 활동했던 저자의 불교적인 관점이 묻어나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저자는 "스님들이 지은 시를 모두 다 선시라고 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며 "굳이 선시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계승류의 철학시와는 달리 선적 심령이 밖으로 나타난 형상, 즉 선적 의경(意境)을 갖춘 심미시로서 시학의 한 범주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합리적인 욕심'으로 삶의 리듬을



위대한 나
매튜 켈리 지음 | 이창석 옮김 | 세종서적 펴냄 | 1만원

해야 한다니, 이것이 바로 우리 문화, 우리 시대의 삶이 겪고있는 '행복 패러독스'다. 우리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팔고 있다. 울면서 겨자 먹기와 다름이 없다.

저자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여유'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고 적당히 만족하며 살자는 '뻔한 말'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있는 힘껏 자신의 별을 쫓으라고 종용한다. 열심과 욕심은 좋은 것이며, 특히 합리적인 욕심은 '삶에 리듬'을 주며 성공과 행복, 혹은 여유와 생산성 모두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이것이 바로 "우주적 신불교의 진면목"

영산불교 현지궁에서 펴낸 위 불서 3권은 팔만대장경의 진수와 동서고금의 종교철학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의 확실한 생사관과 절대계의 붓다님들의 소식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보서(寶書)이다.

이 책은 모든 호법선신이 옹호할 것이며, 성공과 나한이 삼계팔난을 제거할 것이다. - 불세존 말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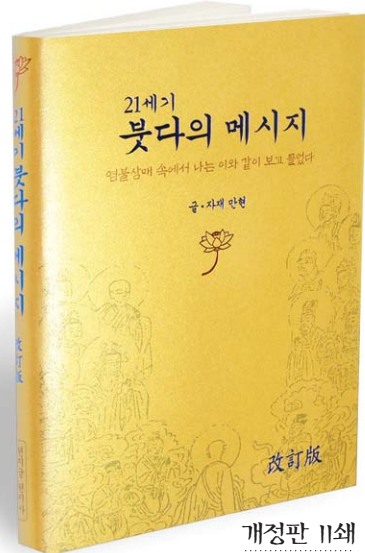
거룩하고 희유한 미증유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존평의 신기원을 연 마스터피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尊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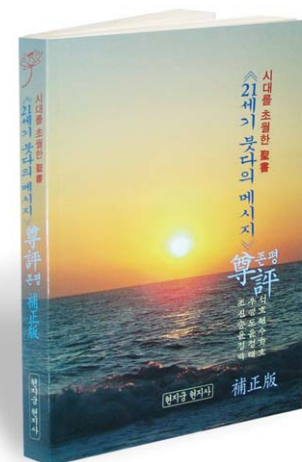
위대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세계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절찬리 판매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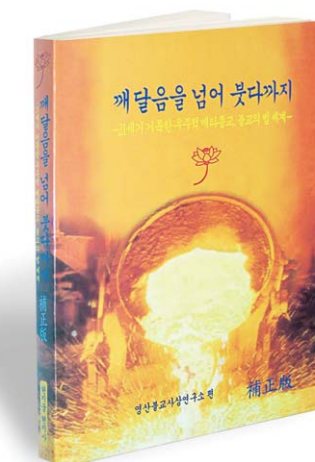
13쇄
발간 2여년만에
들여감!!



개정판 11쇄
370쪽 / 15,000원



보정판 4쇄
489쪽 / 15,000원



보정판 4쇄
509쪽 / 15,000원

위대한 이 시대의 고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자의 생사관에 대한, 네 영역에 관한, 그리고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의 큰 스님 법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교의 설명으로는, ○ 불교의 교의로는 도대체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그저 살았다고 해야 할까... 나는 이제 현자사 큰스님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뚜렷이 알게 되어 매일 매일 보람을 창조하며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되는지 현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나 이 세 권의 미증유의 성서를 꼭 필독해보시기 바란다.

- 지방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